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5264호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지난 겨울에 잡은
옥돔·굴비 등
명절 선물로 '인기'
L1

셀트리온
베그젤마
호주판매 허가
L2

미래 새싹 지원으로 '드림 UP'
일상 속 환경보호로 '희망 UP'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교보증권

교보증권은 '사회와 환경 그리고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책임있는 행동(Action for Positive Change)' 실천을 목표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생태계 조성을 실천하고 있다. 앞서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며 그 첫 단추를 끼웠으며, 'BIS Summit 2022 반부패 서약'에 동참해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송의진 교보증권 경영관리실장(왼쪽)과 조영철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의진 교보증권 경영관리실장(왼쪽)이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최초발간부문 우수보고서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래세대 위해 사랑을 '드림(Dream)'

교보증권은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자립준비청년을 후원하는 '드림업(Dream up)'이 있다.

드림업은 보호, 주거, 생계, 교육, 정서 분야로 나눠 자립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통해 향후 시혜자로 성장토록 하는 장학금 프로젝트다. 올해는 교보증권과 인연을 맺은 지정복지단체인 돈보스코아동복지센터와 상록보육원, 신명보육원, 좋은집보육원, 동명아동복지센터 총 5곳에서 14명의 자립준비 청년을 선발해 사회적협동조합인 드림메이커스을 통해 교육지원 장학금 2800만원을 전달했다.

송의진 교보증권 경영관리실장은 "사회와 환경 그리고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책임있는 행동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드림업 2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자녀와 함께하는 대표적인 봉사활동으로 2012년부터 방학 중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드림이 따뜻한 밥상'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제18회째인 '드림이 따뜻한밥상'에는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가족 100여명이 참여했다. 아이들이 쉽게 조리할 수 있는 간편식, 반찬, 간식 등을 담은 식량키트 290개를 만들어 국제구호단체인 기아대책을 통해 결연아동 가정으로 전달했다.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는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밥상과 함께 건강한 방학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한 미래세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외 일대일 결연아동 후원 프로그램인 '드림이 희망기부'는 매월 임직원 개인 기부금과 회사 기부금을 매칭그랜트로 적립해 비영리단체(NPO)인 기아대책을 통해 국내 및 해외아동(베트남)을 정기적으로 후원한다. 올해 7월 기준 임직원 376명이 참여 중이며 국내아동 281명, 베트남 아동 72명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지난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정복지단체인 좋은집보육원, 신명보육원, 동천의 집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선물과 간식을 전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긴급구호 성금을 시작으로 한 강원도 산불 재해구호까지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영등포지역 홀몸 어르신들 가정에 1150만원 상당의 쿨매트 200개를 기부했다.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왼쪽)가 최원아 기아대책 과장에게 방학 중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드림이 따뜻한 밥상'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교보증권

자립준비청년 장학금 후원 '드림업'
보호·생계·교육 등 실질적 지원 나서
임직원과 매칭그랜트로 결연아동 후원

임직원 친환경 활동으로 포인트 기부
일상 속 탄소 절감 운동 7000여 건 실천

2021년부터 매년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책임있는 경영으로 ESG 생태계 조성

◆친환경 기업문화…임직원, 발 벗고 나서

사내에서는 임직원들의 자발적 실천을 통한 친환경 기업문화 정착도 장려한다. 이에 따라 임직원들은 일상 속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며 포인트를 적립해 기부하는 그린레이스를 진행 중에 있다. 실천항목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나무심기, 저탄소 인증상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이 있으며, 캠페인 시작 이후 약 500여명의 임직원 참여로 7000여 건의 일상생활 속 탄소절감 운동을 실천했다.

이석기 대표이사는 "임직원 가족 모두가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쌓이고 주변으로 전파되면 환경을 보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ESG 경영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캠페인을 통해 적립된 기부금 2000만원은 환경전문 공익재단인 환경재단 에코캠퍼스 설립 및 생태계 복원과 꿀벌숲 보호를 위한 밀원수 식재 및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매년 창립기념일(11월 22일)에는 그 의미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눈다는 취지에서 2010년부터 '창립기념일 특별주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 임직원이 참여해 김장담그기, 사랑의 도시락·빵 만들기, 무료급식, 벽화그리기 등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작년 창립기념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 불안정 해결에 동참하고자 '사랑의 헌혈'을 진행해, 임직원 100여명이 생명나눔을 실천했다. 올해 창립기념일에는 기존에 진행하던 김장담그기, 사랑의 도시락 등 임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대면봉사활동을 계획 중이다.

임직원의 봉사활동 참여도 적극적이다. 매주 자율적으로 전국 권역별 지정복지단체 중 희망하는 기관에 방문하는 정기봉사활동 및 마음이 통하는 직원으로 팀을 구성해 봉사 주제부터 활동내용까지 기획하고 실시하는 팀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친환경 기업 위해 전진

교보증권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2021년 이후 매년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친환경 활동내역과 성과의 외부공개를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이어가고자 함이다. 2022년 지속가능보고서에는 ▲저탄소 친환경 기업 ▲사람중심 가치창출 기업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 실현이라는 교보증권의 ESG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각 영역별 실천사항을 담았다. 지난해에는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한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보고서' 최초 발간부문 우수보고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당시 송의진 경영관리실장은 "책임있는 행동 실천으로 ESG경영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ESG 성과를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는 등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에는 저탄소 친환경 기업을 이루고자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TCFD(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에 가입했다. 또한, 사업장 및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량 ZERO 달성을 위한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ESG 투자심사 기준을 고도화해 다양한 금융투자 및 상품출시때 상시 적용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멀티골 음바페 득점 1위' PSG, 2연승 달리며 2위…이강인 결장 /사진 뉴시스
▲한국,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서 체코에 14-1 대승
▲한국, 월드태권도그랑프리서 동메달 2개로 마무리
▲류현진, 7일 MLB 최약체 오클랜드 상대로 4승 재도전

▲한숨 돌린 클린스만호…황희찬·조규성·오현규 부상 회복
▲장효준, LPGA 포틀랜드 클래식 공동 10위…데뷔 첫 톱10 /사진 뉴시스